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수질통합방제 합동 훈련

박수상 | 승인 2026.06.30 17:11

경남내륙권역 4개지사 요원 참여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의령저수지에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6년 경남 내륙권역 수질통합방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경남 내륙권역 통합방제단 소속인 의령지사, 진주산청지사, 거창함양지사, 합천지사 등 4개 지사 방제요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농업용수 공급의 요충지인 저수지에 예기치 못한 유류 유출과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가뭄과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실전과 다름없는 긴장감 속에서 방제 작업이 전개됐다.

이날 방제훈련 참석자들은 사고 직후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오일 펜스 설치, 유흡착재를 활용한 유류 제거, 녹조 제거제 살포 등 단계별 조치 내용과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숙지했다.

또 인근 지사 간 재난 자재 지원과 인력 동원 등 지사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점검함으로써, 대규모 수질 오염사고 발생 시 인근 지사가 합심해 공동 대응하는 '통합방제단'의 실전 능력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경 지사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은 공사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합동 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극대화해 청정 수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박수상

저작권자 © 경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